

초점 신작 tvN 주말드라마 '무법변호사', 시그널 비밀의 숲의 성공 예감

배우 · 극본 · 연출까지 '기대 만발'

'무법변호사'는 '시그널'(2016), '비밀의 숲'(2017) 등 '웹메이드'라는 평가와 '홍행'이라는 실속을 모두 챙긴 tvN 장르를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tvN 새 토일 드라마 '무법변호사'가 12일 오후 9시 첫 방송을 확정하면서 갖게 되는 기대 또는 우려다.

tvN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법 대신 주먹을 쓰던 '무법(無法) 변호사'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절대 권력에 맞서 싸우며 진정한 '무법(武法) 변호사'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다.

배우 - 이준기 · 최민수 등 주연

극본 - '변호인'으로 유명한 윤현호 작가가 담당

연출 - '개와 늑대의 시간' 김진민 감독이 연출

tvN은 "흥미진진한 전개와 함께 박진감 넘치는 액션 비주얼, 통쾌한 카타르시스로 5월 안방극장을 들쭉이겠다"고 자신한다.

특히 "믿고 보는 제작진, 뛰어난 완성도의 영상, 긴장감을 배가하는 스토리, 배우들의 강렬한 연기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 '무법변호사'는 '시그널' '비밀의 숲'으로 이어진 tvN 장르를 성공 계보를 이어나가며 시청자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선보인 tvN 장르들은 몰입도 높은 구성과 흡인력 큰 스토리, 독보적인 캐릭터를 탄탄한 연출력과 '믿고 보는' 배우들의 열연으로 완벽하게 표현해내며 한국은 물론 해외 안방극장을 매료시켰다.



'시그널'(극본 김은희·연출 김원석)은 과거로부터 걸려온 무전기 신호로 연결된 현재와 과거의 형사들이 오래된 미제 사건들을 다시 파헤치는 이야기로 최종회(16회) 12.5%(닐슨코리아) 등 방송 내내 지상파 부럽지 않은 시청률을 켜졌다. 지난해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작품상, 여자 최우수 연기상(김혜수), 극본상 등을 거머쥐었다.

'비밀의 숲'(극본 이수연·연출 안길호)

은 감정을 느끼지 못 하는 검사와 정의롭고 따뜻한 형사가 검찰 스폰서 살인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내용으로 최종회(16회) 6.8%(닐슨코리아) 등 높은 시청률을 얻었다. 3월 열린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대상, 남자 최우수 연기상(조승우), 극본상 등을 차지했다.

'무법변호사'는 일단 출연진에서 앞선 두 드라마 배우 조합에 뒤지지 않는다. '시그널'은 김혜수(48)·조진웅(42)·이제

훈(33), '비밀의 숲'은 조승우(38)·배두나(39)·이준혁(34)·신혜선(29) 등이 주연했다.

이준기(35)가 변호사 '봉상필'로 나와 능청스러움과 냉철한 카리스마라는 상반된 매력을 발산하고, 서예지(28)가 '하재이'를 맡아 꼰장 변호사의 걸크러시를 과시한다. 관록의 이해영(56)과 최민수(56)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판사 '차문숙'과 조폭 보스 출신 오주그룹 회장 '안오주'로 분해 카리스마를 분출한다.

극본에도 기대감이 고조된다. 영화 '변호인' '공조', TV 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 등을 집필한 윤현호 작가가 책임지는 덕이다. 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법과 주먹을 겸비한 변호사라는 새로운 변호사 캐릭터와 '변호인'의 호소력, '리멤버'의 강렬함, '공조'의 통쾌한 액션을 모두 더한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출자도 극강의 기대감을 더한다. 김진민(46) 감독이다. '개와 늑대의 시간' '로드 넘버 원' '무신' '오만과 편견' 등을 연출한 김 감독답게 스펙터클한 액션부터 촘촘한 서스펜스까지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예고 영상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난 약점도 있다. 액션과 만화 같은 경쾌함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이다. '시그널' '비밀의 숲' 등 전작들의 목직함에 매혹된 tvN 장르를 마니아층을 어떻게 이해서릴지가 관건인 셈이다.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같은 CJ E&M 채널인 OCN 오리지널 '나쁜녀석들: 악의 도시'(2017)가 빈약한 스토리를 액션으로 채우려다 '나쁜녀석들'(2014) 마니아층에마저 외면당해 실패한 일도 있다.

'무법변호사'는 총 16부작으로 '라이프' 후속으로 방송한다. /뉴시스



SBS '기름진 멜로', 6%대 시청률로 출발

KBS 2TV '우리가 만난 기적' 시청률 11.4%

SBS TV '기름진 멜로'(극본 서숙향·연출 박선호)가 6%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첫 방송한 '기름진 멜로' 1·2부 전국 가구 시청률은 각각 5.8%, 6.4%로 집계됐다. 이는 동시간대 2위 시청률에 해당한다.

'기름진 멜로'는 대한민국 최고 중식당 스타 셰프 '두칠성'(장혁)이 망해가는 동네 중국집 주방에서 일하는 신세로 추락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첫 방송에서는 두칠성과 '서풍'(준호), '단새우'(정려원)의 기막힌 만남이 그려졌다.

단새우는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 단새우에게 첫눈에 반한 두칠성은 그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만 나중에 결혼해라. 이혼은 너무 힘들다"고 고백했다.

서풍 역시 "결혼 볼 것 없다. 내가 짜장면 만들어준다니까"라고 말해 앞으로 전개될 세 사람 관계에 궁금증을 키웠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 방송한 KBS 2TV '우리가 만난 기적'은 시청률 11.4%로 1위를 지켰다. MBC 단막극 '미치겠다, 너땀에!'는 1·2부는 각각 2.5%, 2.2% 시청률을 기록했다. /뉴시스



몬스타엑스, 일본서 '승승장구' ... 월드투어 준비도

남자 아이돌그룹 '몬스타엑스'가 일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소속사 스타집엔터테인먼트는 몬스타엑스가 지난달 26일 발매한 일본 앨범 '피스'가 현지 '타워레코드' 전 점 종합 주간 차트에서 1위에 오르고, '오리콘 위클리 차트'와 '빌보드 재팬 핫 앨범 차트'에서 각각 3위를 차지하는 등 정상권을 섭렵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또한 5일에는 '오리콘 데일리 차트'에서 1위를 거머쥐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오리콘 위클리 등서 정상권

피스는 몬스타엑스가 일본에서 발매한 첫 번째 정규 앨범이다. 현지에서 처음으로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주목받은 노래 '퍼즐'을 비롯해 다양한 곡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적은 싱글 차트가 아닌 앨범 차트, 그것도 한 주 간의 순위를 집계하는 주간 차트에서 이뤄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 있다는 것이 소속사 설명이다.

몬스타엑스의 일본 내 높은 인기는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다.

지난해 싱글 '히어로'로 일본에 정식 데뷔하면서 타워레코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서머 소닉 2017' 메인 무대에 한국 아이돌 그룹 대표로 참가해 강렬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후 발매한 두 번째 싱글 앨범 '뉴티풀' 등 현지에서 발매하는 앨범마다 타워레코드와 오리콘 데일리 차트 1위를 석권했다.

몬스타엑스는 3월 일본에서 내놓은 여섯

번째 미니앨범 '더 커넥트'로 '타워 레코드 데일리 세일즈 차트' 1위를 비롯해 전 차트를 점령했었다. 4가지 버전을 한데 담은 통합 패키지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버전별 앨범 역시 해당 차트에서 잇따라 4위, 5위, 6위, 7위에 올랐다.

특히 몬스타엑스는 3월 싱글 '스포트라이트'로 일본 현지 앨범 누계 판매량 10만 장 이상인 앨범에만 주어지는 '골드 디스크'에 선정됐다.

한편 몬스타엑스는 일본 공연을 마친 뒤 귀국해 26~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국내 콘서트를 연다. 이어 '월드 투어'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뉴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